광주 교육 소식

## 호남대, 유학생 학부모에 ‘감동 이벤트’ 선물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모들 초청해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학부모 초청단은 방문 첫날인 5월 22일 오전 9시 캠퍼스 투어와 IT스퀘어를 참관하고 외국인 유학생 자녀들로부터 ‘깜짝 감동 이벤트’를 선물 받았다.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성장 동영상과 함께 감사의 영상편지를 부모에게 선물하고 ‘그동안 키워주셔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세족식 행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뜻밖의 선물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유학 온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호남대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산업디자인학과 왕전위(4년) 모친인 리잉팡 씨는 “호남대학교에서 초청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선물에 정말 감동했다.”며 “처음 한국에 유학간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지만 아이의 얼굴표정이 참 밝아져 마음이 놓이고 무사히 유학생활을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 둘째 날인 5월 23일 오전에는 피부 관리를 받으며 여행의 피로를 풀고 삼계탕 시식을 통해 한국전통 보양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기관인 기아자동차를 방문하고 뷰티미용학과와 치위생학과의 재능기부를 통해 ‘네일 & 두피관리’, ‘스켈링’을 받았다.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전주 채석강과 전주한옥마을을 탐방한 뒤 광주에서 환송만찬을 가질 계획이다.

조만철 기자 jmc@

## 광주대, 대한민국 국제요리 제과경연대회 최우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 호텔외식조리학과가 ‘2017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2개 등을 수상했다.

광주대 호텔외식조리학과 최순갑(4년) 학생팀은 18일부터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라이브 3코스 부문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순갑 학생팀은 분자요리인 망고케비어와 훈제연어, 수비스한 스테이크와 라따두이, 산딸기무스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지현(4년) 학생팀은 한식 전시 부문에 42개의 전통 한식을 선보여 우수상을, 임한성(3년) 학생팀은 육류요리 부문, 김정은(3년) 학생팀은 생선요리 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조만철 기자 jmc@

# 광주교육청, 소프트웨어교육 ‘상향평준화’ 한다

## SW마이스터고·도산초 등 우수사례 공유하고 담당자 컨설팅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관내 37개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 교사 74명과 소프트웨어교육 수업연구회 회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단 등 총 9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립광주과학관 강신영 관장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교사의 우수사례 발표·공유와 담당자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소프트웨어교육 우수사례 발표엔 도산초,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광덕고 등이 참여했다. 도산초 김은하 교사는 SW교육 환경 구성을 위한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 교구 및 기자재 확충 경험, 그리고 실제 학생들과 진행한 미세먼지 정화장치 제어하기, 투표 프로그램 만들기 등 운영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워크숍 사례발표 담당 교사와 참석 교사들은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에서 개발한 여러 수업 모델과 학교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질문과 논의로 담당자 컨설팅과 권역별 협의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과학·정보팀 담당자는 “꾸준한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교원역량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덕원 기자 sdw@

# 논 달리고 손으로 모 심고

## 광주하남초 ‘논두레 체험’

20일 광산구 산정동에 소재한 산정제 저수지 인근 논에서 방금 전 논달리기 경주를 끝낸 학생들의 손모심기(모내기)가 시작됐다.

하남초등학교 학생들인 이들은 학부모·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두레’ 프로그램에 참여해 풍작을 기원하는 풍물단의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새참 먹기, 손모심기, 논달리기 등에 참여했다.

‘논두레’ 프로그램은 광산구청,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하남초등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 인근 논에 가바쌀(찹쌀 현미)을 재배해 모를 직접 심어보고 수확해 나눔까지 체험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날 모를 심어본 학생들은 “이렇게 작은 풀이 자라서 우리가 먹는 쌀이 된다니 신기하고 마지막 수확까지 꼭 해보고 싶어요”, “농사는 너무 힘든거 같아요, 농부님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일하고 먹는 밥맛이 꿀맛이예요, 오늘은 나물도 맛있어요” 등 다양한 생각들을 전했다. ‘힘들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직접 텃밭농사를 지어보니 자녀들의 식생활 교육방법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이 없다”며 “현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이번 체험은 자녀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가치를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숙자 교장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 체험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며,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알찬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2017 쌀 중심 식습관 교육학교’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과 쌀의 가치를 배우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침 결식과 편식 등 학생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내용 뿐 아니라, 쌀의 재배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벼농사를 체험하는 알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조만철 기자 jmc@

##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제 3회 BIS컵 국제미용기능대회’ 석권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학과장 조고미)는 5월 20일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3회 BIS ( Beauty Industry society)컵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쾌거를 올렸다.

이날 열린 대회에서 뷰티미용학과 재학생 29명은 헤어·피부·네일 등 3개 종목에 출전해 그랑프리 올림픽상 1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상 3명, 대상 7명, 금상 11명, 은상 7명 등 각기의 분야에서 전원이 수상했다. 광주·전남권과 전북·경북권 뷰티미용학과 재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와 뷰티미용아카데미 학생 등 450여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뷰티미용학과는 헤어 종목 ‘기초헤어커트’ 부문에서 최사랑(1년)학생이 대상, 서경애(3년)·안수연·홍은서(1년) 학생이 금상, 김지현(3년)·박솔미(2년) 학생이 은상을 차지했다. ‘패션커트’ 부문에서는 김혜진(2년) 학생이 상금 10만원과 함께 한국기술자격검정원상을 수상했으며, 최성원(2년)·최원일(1년) 학생이 각각 대상을, ‘기초퍼머넌트’ 부문에서는 최인지(1년) 학생이 대상, 최사랑·서이경·이혜린(1년) 학생이 금상, 최윤영(1년) 학생이 은상을 차지했다. ‘고전창작트레머리’ 부문에서는 윤지나(3년) 학생이 그랑프리 올림픽상과 함께 상금을 수상했고, ‘고전창작쪽머리’ 부문에서는 전혜빈(3년)학생이 금상, 김수아(2년) 학생이 은상을 수상했다.

## 광주교육청,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 주차장에서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행사 참여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광주금연지원센터, 각 구별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1기관이다. 각 기관 담당자 70여 명이 참여하며 중·고등학생 50명도 ‘금연 서포터즈’로 이날 캠페인을 지원한다.

홍보 내용은 체험위주 건강부스 설치, 금연 캠페인 판넬과 배너 전시, 무료 CO측정, 폐 기능 검사, 금연버스를 활용한 금연 상담, 니코틴 의존도 측정, 금연 OX퀴즈 등이다. 시교육청은 추가로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와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담배 연기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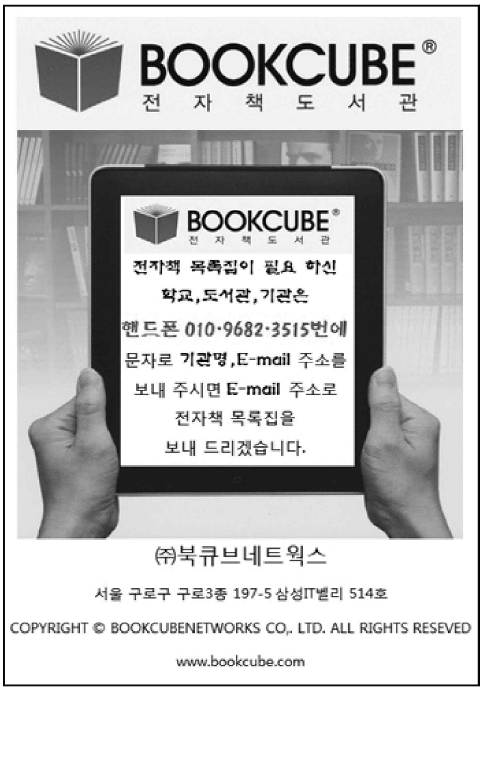
전 세계 담배규제정책의 근간인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선 교육, 의사소통, (금연)훈련, 대중의 인식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김성남 과장은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을 통해 직·간접 흡연의 폐해와 금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손덕원 기자 sdw@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서부 부르미’ 11명 위촉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식)이 19일 서부지원청 상황실에서 단위학교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 대응과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학교 교감, 수석교사, 교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서부 부르미’ 위촉식을 가졌다.

서부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생활교육 관련 활동이 우수한 교원 가운데 현장 추천을 받아 ‘서부 부르미’를 초등·중등 2팀으로 구성했다. 단장이자 초등 부르미 팀장엔 유정종 미산초 교감을, 중등 부르미 팀장엔 양동안 영천중 교감을 위촉했다. 선발된 교원들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활동, 학생생활교육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양성기관 수료 등 다양한 활동 경력을 지녔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이나연 변호사가 자문을 맡아 활동하며 담당 장학사들이 각 팀을 지원한다. 서부 부르미는 향후 서부 관내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발생 시 현장 맞춤형 컨설팅, 긴급 출동, 생활교육 지원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부르미 대표 전화(1644-9576)도 개설했다. 1644-9576을 누르고 1번을 누르면 본청부르미가, 2번은 서부초등부르미, 3번은 서부중등부르미가 연결된다.

김홍식 교육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생활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생생활교육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로 뽑힌 시교육청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교육청지원청 차원에서 확대,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활동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